Reinforcement Learning

DQN / PerDQN / Dueling DQN

Q Index

1. Review

2.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(DQN)

3. Prioritized Experience Replay (Per-DQN)

4. Dueling Network Architectures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 (Dueling DQN)

가치 함수와 벨만 방정식

- 상태 가치 함수(state value function)란 특정 상태에 도달 후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감가 누적 보상을 의미
- 행동 가치 함수(action value function, Q-function)란 특정 상태-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감가 누적 보상을 의미

$$V_{\pi}(s) = E_{\pi}[G_t|S_t = s] \qquad Q_{\pi}(s,a) = E_{\pi}[G_t|S_t = s, A_t = a]$$

• 상태 가치 함수와 행동 가치 함수는 서로 변환이 가능하며 해당 성질을 활용하여 벨만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음

$$V_{\pi}(s) = E_{\pi}[R_{t+1} + \gamma V_{\pi}(S_{t+1}) | S_t = s]$$

$$Q_{\pi}(s, a) = E_{\pi}[R_{t+1} + \gamma Q_{\pi}(S_{t+1}, A_{t+1}) | S_t = s, A_t = a]$$

- 벨만 방정식이란 현재 시점과 다음 시점의 가치 함수 간의 관계식을 말하며 가치 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 식
- 벨만 최적 방정식은 최적 가치 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 식이며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야함(모델을 알 때 : DP / 모델을 모를 때 : MC, TD)
- 몬테 카를로 학습과 시간차 학습은 target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함

MC와 TD

• 몬테 카를로 학습(MC-learning)은 감가 누적 보상(G_t)을 target으로 삼아 학습을 함

$$V(S_t) = V(S_t) + \alpha(G_t - V(S_t))$$

- 몬테 카를로 학습은 G_t 를 사용하기 때문에 low bias / high variance 특징이 존재하며 episode가 끝나는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함(episodic)
- 에피소드가 끝날 때만 사용이 가능한 MC 대신에 시간차 학습(TD-learning)은 다음 시점의 가치 함수를 target으로 삼음

$$V(S_t) = V(S_t) + \alpha (\overline{R_{t+1} + \gamma V(S_{t+1})} - V(S_t))$$

$$\overline{\text{TD-target}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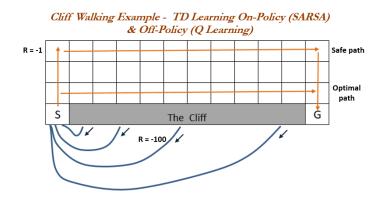
- 시간차 학습은 high bias / low variance 특징이 존재하며 episodic 환경이 아니더라도 활용이 가능함
- 이후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TD-learning을 기반으로 동작함

Q-learning

• Q-learning은 TD-learning 알고리즘의 하나로 행동 가치 함수를 학습하는 알고리즘, 갱신 공식은 다음과 같음

$$Q(S_t, A_t) = Q(S_t, A_t) + \alpha [R_{t+1} + \gamma \max_{\dot{\alpha}} Q(S_{t+1}, \dot{\alpha}) - Q(S_t, A_t)]$$

- 앞의 TD-learning에서 다른 점은 행동 가치 함수를 학습한다는 것과 target으로 다음 시점의 maximum Q-value를 사용한다는 것
- Q-learning은 행동 정책(behavior policy)은 e-greedy를, 갱신 정책(target policy)는 greedy policy를 사용하는 off-policy 알고리즘임



- 다만 Q-learning은 table 기반의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state-action space가 크거나 무한한 공간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
-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(e.g., linear combination of features, neural net)를 이용하여 Q-value를 approximation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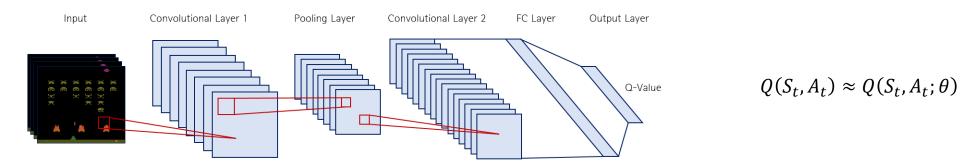
Introduction

- DQN은 2013년 DeepMind에서 발표한 "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" 제목의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
- 60HZ의 210x160 RGB video의 state space를 갖는 Atari game 환경은 기존의 table 기반의 강화학습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였음



Figure 1: Screen shots from five Atari 2600 Games: (Left-to-right) Pong, Breakout, Space Invaders, Seaguest, Beam Rider

따라서 특정 함수를 이용하여 Q-value를 근사하는 방법이 등장하였으며 해당 함수의 용량만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임



• DQN 이전에 neural network를 활용하여 Q-value를 근사하는 Q-network 방법론이 존재하였음



Introduction

Q-network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음

```
Initialize action-value function Q with random weights
For episode = 1, M do
             Initialize sequence s_1 = \{x_1\} and preprocessed sequenced \phi_1 = \phi(s_1)
             For t = 1. T do
                          With probability \epsilon select a random action a_t
                          otherwise select a_t = \max_{a} Q^*(\phi(s_t), a; \theta)
                          Execute action a_t in emulator and observe reward r_t and image x_{t+1}
                          Set s_{t+1} = s_t, a_t, x_{t+1} and preprocess \phi_{t+1} = \phi(s_{t+1})
                         Set y_t = \begin{cases} r_t & \text{for terminal } \phi_{t+1} \\ r_t + \gamma \max_{a'} Q(\phi_{t+1}, a'; \theta)) \end{cases} for non-terminal \phi_{t+1}
                          Perform a gradient descent step on (y_t - Q(\phi_t, a_t; \theta))^2
             end for
end for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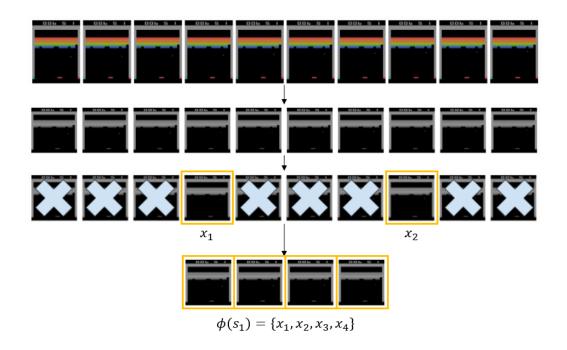
Introduction

- Q-network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하였음
 - Small volum of training data
 - 일반적으로 neural network는 학습 데이터가 많은 supervised/unsupervised learning에 효율적인 방법임
 - 강화학습은 한번 갱신에 사용한 transition은 다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neural network를 학습시키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듦
 - High correlation between samples
 - 또한 강화학습의 학습 데이터인 transition은 correlation이 굉장히 높음(직전 transition에 종속되기 때문)
 - 따라서 global optimum에 도달하지 못하고 local minimum에 빠질 위험이 발생
 - Non-stationary target problem
 - Q-network의 target 값인 $r_t + \gamma \max_{a'} Q(\phi_{t+1}, a'; \theta)$) 값 또한 network의 추정값임, 즉 동일한 network로 target과 predict Q-value를 계산함
 - 따라서 Q-network의 갱신 주기(=batch size)에 따라서 target 값이 변하게 되어 안정적인 학습이 어려움
- 이는 Q-network 알고리즘의 한계가 아닌 강화학습에서 nueral network 기반의 approach의 한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
- Deepmind에서 제시한 DQN을 통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강화학습이 각광을 받게 됨(Nature에도 등재..)



Proposed methods: data preprocessing

- DQN은 Atari game 스냅샷의 sequence를 state로 사용함. 단일 스냅샷만으로는 상황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history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
- 또한 저자들은 210x160x3의 고해상도 스냅샷을 84x84x1의 사이즈로 변경 후 연속된 스냅샷 중 K번째 위치한 이미지 (x_t) 들만을 사용
 - 연속된 스냅샷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입력 데이터 간 correlation을 높이기 때문





Proposed method

- DQN은 Q-network의 단점 중 small volum of training data/high correlation between sample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play memory를 도입함
- 이를 experience replay라고 부르며 에이전트가 매 time-step마다 획득한 <state, action, reward, next state> 튜플을 replay memory에 저장함
- Replay memory는 first in first out 형태로 기록되며 memory에 저장된 샘플 중 n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CNN을 학습함
- Experience replay를 통해 transition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샘플을 추출하여 학습하기에 high correlation 문제도 해결 가능함

Replay Memory s_1 , a_1 , r_2 , s_2 Q-network s_2 , a_2 , r_3 , s_3 s_3 , a_3 , r_4 , s_4 Random $Q(S_t, A_t; \theta)$ Sampling s_4 , a_4 , r_5 , s_5 s_{t} , a_{t} , r_{t+1} , s_{t+1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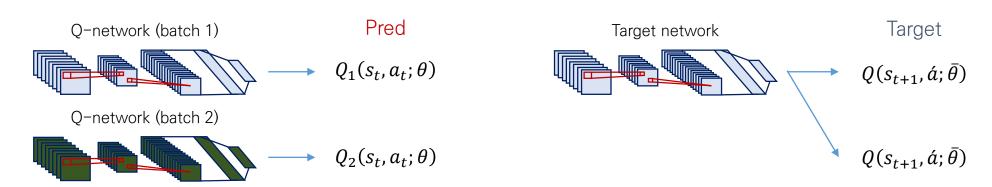


Proposed method

- Non-stationary target problem은 O-target을 추정하는 network와 O-value를 추정하는 network를 분리하여 해결하였음
- Q-target을 추정하는 network를 target network($\bar{\theta}$)라고 부르며 일정 주기마다 Q-network(θ)의 가중치를 복사하여 사용함

독립된 가중치
$$\min_{\theta} \sum_{t=0}^{T} [r + \gamma \max_{\dot{a}} Q(s_{t+1}, \dot{a}; \theta) - Q(s_t, a_t; \theta)]^2 \qquad \qquad \qquad \min_{\theta} \sum_{t=0}^{T} [r + \gamma \max_{\dot{a}} Q(s_{t+1}, \dot{a}; \bar{\theta}) - Q(s_t, a_t; \theta)]^2$$
 Target
$$\qquad \qquad \qquad \text{Pred}$$

즉 Q-target을 추정하는 network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Q-network를 갱신하여도 target 값은 변하지 않음





Proposed method

• DQN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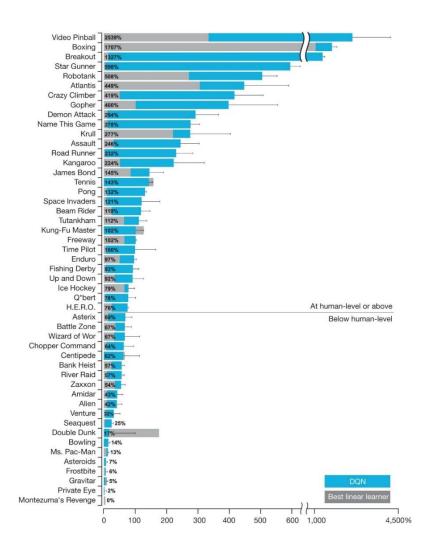
```
Initialize action-value function Q with random weights
For episode = 1, M do
               Initialize sequence s_1 = \{x_1\} and preprocessed sequenced \phi_1 = \phi(s_1)
               For t = 1, T do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ith probability \epsilon select a random action a_t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therwise select a_t = \max_{a} Q^*(\phi(s_t), a; \theta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ecute action a_t in emulator and observe reward r_t and image x_{t+1}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et S_{t+1} = s_t, a_t, x_{t+1} and preprocess \phi_{t+1} = \phi(s_{t+1}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ore transition (\phi_t, a_t, r_t, \phi_{t+1}) in D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ample random minibatch of trainsitions (\phi_t, a_t, r_t, \phi_{t+1}) from D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et y_j = \begin{cases} r_j \\ r_j + \gamma \max_{a'} Q(\phi_{j+1}, a'; \bar{\theta}) \end{cases}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or terminal \phi_{i+1}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or non-terminal \phi_{i+1}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rform a gradient descent step on (y_i - Q(\phi_i, a_i; \theta))^2 with respect to the network parameter \theta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very C steps reset \overline{\theta} = \theta
               end for
end for
```



Results

• DQN의 ablation study 및 성능은 다음과 같음

	Replay	Replay	No replay	No replay
	Fixed-Q	Q-learning	Fixed-Q	Q-learning
Breakout	316.81	240.73	10.16	3.17
Enduro	1006.3	831.25	141.89	29.1
River Raid	7446.62	4102.81	2867.66	1453.02
Seaquest	2894.4	822.55	1003	275.81
Space Invaders	1088.94	826.33	373.22	301.99



PerDQN

- Replay memory에는 학습에 효율적인 transition과 그렇지 않은 transition이 혼재해 있으나 DQN은 이에 상관없이 n개를 추출하여 학습함
- PerDQN은 이를 개선하여 replay memory에서 좋은 transition에 우선 순위(priority, p)를 부여하여 추출하여 학습하는 알고리즘임
- Priority는 TD-error(δ)의 절대값으로 정해지며 추출 확률(sampling probability, P)은 priority를 토대로 구해짐

$$\delta_{j} = R_{j} + \gamma \max_{\alpha} Q(S_{j}, \alpha) - Q(S_{j-1}, A_{j-1})$$

$$p_{j} \leftarrow |\delta_{j}| + \varepsilon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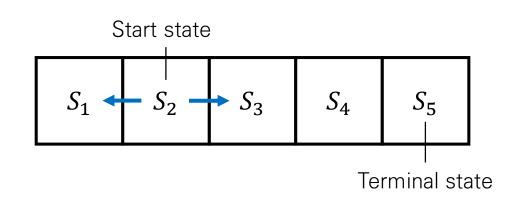
$$P(j) = \frac{p_{j}^{\alpha}}{\sum_{k} p_{k}^{\alpha}}$$

- Priority의 ε 은 매우 작은 상수값으로 해당 샘플의 priority가 0이 되어 아예 뽑히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
- TD-error가 큰 transition에 보다 높은 확률을 두어 학습하기 때문에 갱신해야할 양이 많은 샘플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됨



PerDQN: simple example

- 다음과 같은 환경과 replay memory가 존재할 때 3개의 transition을 뽑아 DQN과 PerDQN 갱신을 비교하고자 함
- 해당 환경은 terminal state에 도달 시 +1의 reward를 받고 에피소드가 종료되며 step size는 1, discount factor는 0.9로 설정
- 초기 state value function은 V(S) = (0,0,0,0,0)으로 초기화



Replay memory

$$egin{array}{|c|c|c|c|} \hline T_1 & - & < S_2, L, 0, S_1 > \ \hline T_2 & - & < S_1, R, 0, S_2 > \ \hline T_3 & - & < S_2, L, 0, S_1 > \ \hline T_4 & - & < S_1, R, 0, S_2 > \ \hline T_5 & - & < S_2, R, 0, S_3 > \ \hline T_6 & - & < S_3, R, 0, S_4 > \ \hline T_7 & - & < S_4, R, 1, S_5 > \ \hline \end{array}$$

PerDQN: simple example

- 우선 DQN의 경우를 살펴보면 replay memory로 부터 랜덤하게 3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학습에 사용함
- 다음은 3개의 transition T_2 , T_1 , T_5 이 뽑혔다고 가정하고 갱신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음

Replay Memory

TD 갱신 공식
$$V(S_t) = V(S_t) + \alpha(R_{t+1} + \gamma V(S_{t+1}) - V(S_t))$$

•
$$T_2$$
에 의한 갱신 $V(S_2) = 0 + 1 \times (0 + 0.9 \times 0 - 0)$
= 0

•
$$T_1$$
에 의한 갱신 $V(S_1) = 0 + 1 \times (0 + 0.9 \times 0 - 0)$ $= 0$

•
$$T_5$$
에 의한 갱신 $V(S_2) = 0 + 1 \times (0 + 0.9 \times 0 - 0)$ $= 0$

• 3번의 갱신 후 State Value Function

$$V(S) = (0,0,0,0,0)$$

PerDQN: simple example

• PerDQN을 위해서 각 transition 별 sampling probability를 구하면 다음과 같음(ε =0.01)

$$V(S) = (0,0,0,0,0)$$

$$\delta_7 = 1 + 0.9 \times 0 - 0$$
$$= 1$$

	'	,	,	
T_1	_	$< S_2$	$L, 0, S_1$	>
T_2	_	$< S_1$	$R, 0, S_2$	>
T_3		< S ₂	$L, L, 0, S_1$	>
T_4		$< S_1$	$R, 0, S_2$	>
T_5	_	< S ₂	$R, 0, S_3$, >
T_6	—	< S ₃	$R, 0, S_4$, >
T_7	_	$< S_4$	$R, 1, S_5$; >

Replay Memory

TD-Error (δ)	Priority $(\delta + \varepsilon)$	Sampling Probability
$\delta_1=0$	$p_1=0.01$	P(1) = 0.0093
$\delta_2=0$	$p_2 = 0.01$	P(2) = 0.0093
$\delta_3=0$	$p_3 = 0.01$	P(3) = 0.0093
$\delta_4=0$	$p_4 = 0.01$	P(4) = 0.0093
$\delta_5=0$	$p_5 = 0.01$	P(5) = 0.0093
$\delta_6=0$	$p_6 = 0.01$	P(6) = 0.0093
$\delta_7=1$	$p_7 = 1.01$	P(7) = 0.9439

위 확률을 따라 T_7 이 뽑혔다고 가정 후 첫 번째 갱신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음

$$V(S_4) = 0 + 1 \times (1 + 0.9 \times 0 - 0)$$
$$= 1$$

$$V(S) = (0,0,0,1,0)$$

PerDQN: simple example

• 첫 번째 갱신이 끝나고 각 transition 별 sampling probability를 다시 구하면 다음과 같음

$$V(S) = (0,0,0,1,0)$$

$$\delta_6 = 0 + 0.9 \times 1 - 0$$

= 0.9

T_1	$< S_2, L, 0, S_1$	>
T_2	$< S_1, R, 0, S_2$	>
T_3	$< S_2, L, 0, S_1$	>
T_4	$< S_1, R, 0, S_2$	>
T_5	$< S_2, R, 0, S_3$	>
T_6	$< S_3, R, 0, S_4$	>
T_7	$- < S_4, R, 1, S_5$	>

Replay Memory

TD-Error (δ)
$\delta_1 = 0$
$\delta_2=0$
$\delta_3=0$
$\delta_4=0$
$\delta_5=0$
$\delta_6 = 0.9$
$\delta_7=0$

D-Error (
$$\delta$$
)
 Priority ($|\delta| + \varepsilon$)
 Sampling Probability

 $\delta_1 = 0$
 $p_1 = 0.01$
 $P(1) = 0.0103$
 $\delta_2 = 0$
 $p_2 = 0.01$
 $P(2) = 0.0103$
 $\delta_3 = 0$
 $p_3 = 0.01$
 $P(3) = 0.0103$
 $\delta_4 = 0$
 $p_4 = 0.01$
 $P(4) = 0.0103$
 $\delta_5 = 0$
 $p_5 = 0.01$
 $P(5) = 0.0103$
 $\delta_6 = 0.9$
 $p_6 = 0.91$
 $P(6) = 0.9381$
 $\delta_7 = 0$
 $p_7 = 0.01$
 $P(7) = 0.0103$

위 확률을 따라 T_6 이 뽑혔다고 가정 후 두 번째 갱신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음

$$V(S_3) = 0 + 1 \times (0 + 0.9 \times 1 - 0)$$

= 0.9

$$V(S) = (0,0,0.9,1,0)$$

PerDQN: simple example

• 두 번째 갱신이 끝나고 각 transition 별 sampling probability를 다시 구하면 다음과 같음

$$V(S) = (0,0,0.9,1,0)$$

$$\delta_5 = 0 + 0.9 \times 0.9 - 0$$
$$= 0.81$$

	replay Memory
T_1	$ < S_2, L, 0, S_1 >$
T_2	$- \langle S_1, R, 0, S_2 \rangle$
T_3	$- \langle S_2, L, 0, S_1 \rangle$
T_4	$< S_1, R, 0, S_2 >$
T_5	$< S_2, R, 0, S_3 >$
T_6	$$
T_7	$- \langle S_4, R, 1, S_5 \rangle$

Replay Memory

TD-Error (δ)
$\delta_1 = 0$
$\delta_2=0$
$\delta_3=0$
$\delta_4=0$
$\delta_5=0.81$
$\delta_6 = 0$
$\delta_7=0$

Ferror (
$$\delta$$
) Priority ($|\delta| + \varepsilon$) Sampling Probability $S_1 = 0$ $p_1 = 0.01$ $P(1) = 0.0114$ $P(2) = 0.0114$ $P(3) = 0.0114$ $P(3) = 0.0114$ $P(4) = 0.0114$ $P(5) = 0.81$ $P(5) = 0.9318$ $P(6) = 0.0114$ $P(7) = 0.0114$

위 확률을 따라 T_5 이 뽑혔다고 가정 후 세 번째 갱신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음

$$V(S_3) = 0 + 1 \times (0 + 0.81 \times 1 - 0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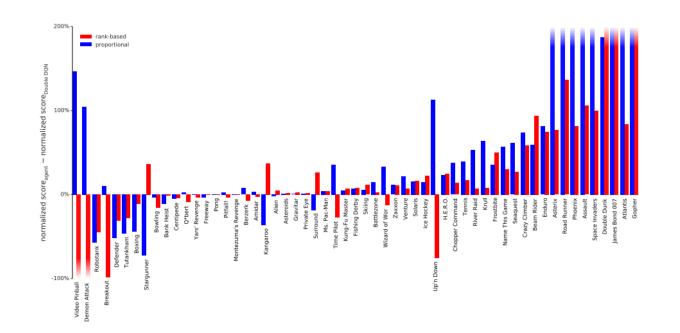
= 0.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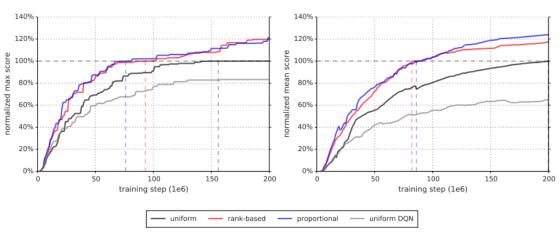
$$V(S) = (0,0.81,0.9,1,0)$$



Results

- 즉 PerDQN은 중요도가 높은 sample을 우선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임
- 실험 결과 PER을 사용하면 성능 향상과 더불어 학습 속도의 향상도 존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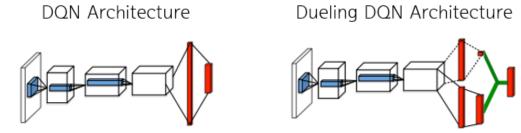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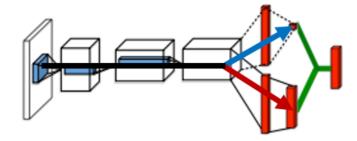


Introduction

• DQN을 개선한 또 다른 모델로 Dueling DQN이 존재하며 구조는 다음과 같음



- 즉 Q-value를 추정할 때 하나의 layer에서 구하는가, 두개로 분리하여 합치는가의 차이가 존재함
- CNN으로 input state의 feature를 추출하는 것은 동일하나 Dueling DQN은 state value와 advantage를 동시에 추정 후 이를 합쳐서 Q-value를 추정함
 - → State Value Stream
 - → Advantage Stream



Proposed method

• Advantage란 action value function과 state value function의 차이로 정의되며 notation은 다음과 같음

$$A_{\pi}(s,a) = Q_{\pi}(s,a) - V_{\pi}(s)$$

- Advantage의 목적은 variance를 줄이는 것에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policy gradient > actor-critic > advantage actor-critic에서 자세히 다룸
- Dueling DQN의 최종 아웃풋인 Q-value는 다음과 같이 state value (scalar)와 advantage function (action space)의 합으로 표기함

$$Q(s, a; \theta, \alpha, \beta) = V(s; \theta, \beta) + A(s, a; \theta, \alpha)$$

- 이 때 scalar인 state value를 advantage vector만큼 복사하여 크기를 맞춘 후 더해줌
- 즉 Dueling DQN의 핵심 아이디어는 state value와 advantage를 먼저 추정 후 이들을 합산하여 Q-value를 추정하는 것임



Proposed method

- 다만 위 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성능이 좋지 않으며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고
 - 1) 도출된 Q-value가 state value와 advantage 중 어디서 유도된 값인지 알 수 없음
 - 2) State value와 advantage function 또한 추정값이기에 이를 토대로 구해지는 Q-value를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음
-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advantage의 max 값을 감하도록 식을 변경함

$$Q(s, \alpha; \theta, \alpha, \beta) = V(s; \theta, \beta) + [A(s, \alpha; \theta, \alpha) - \max_{\alpha \in \mathcal{A}} A(s, \alpha; \theta, \alpha)]$$

- 즉 에이전트가 maximum Q-value를 갖는 행동을 택했을 때의 값이 곧 state value와 동일해지도록 식을 변경
- 두 번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advantage의 평균을 감하여 advantage의 평균값이 0이 되도록 식을 변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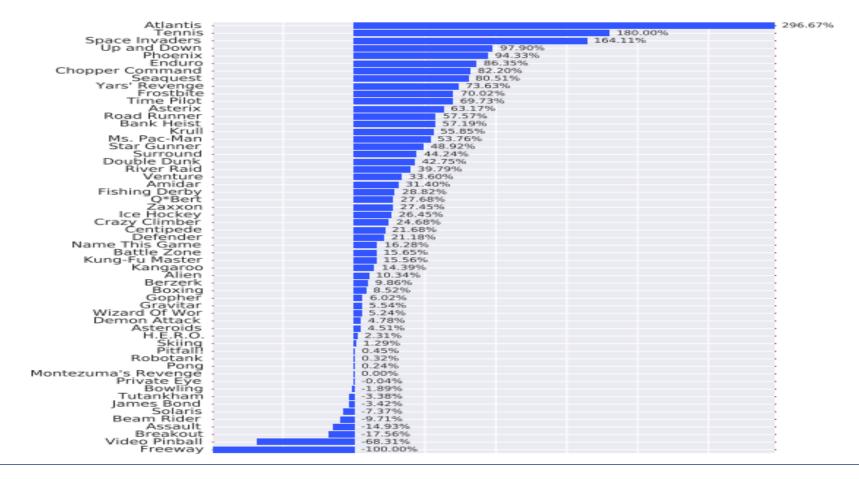
$$Q(s, \alpha; \theta, \alpha, \beta) = V(s; \theta, \beta) + [A(s, \alpha; \theta, \alpha) - \frac{1}{|\mathcal{A}|} \sum_{\dot{\alpha}} A(s, \dot{\alpha}; \theta, \alpha)]$$

• Advantage function의 기대값은 0이라는 성질을 활용하여 true advantage function의 성질을 따르도록 강제한 식이며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위 식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임



Results

• Dueling DQN은 기존의 DQN 알고리즘(Double DQN)과 비교하여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음



A&Q